

KERI Brief

중국경제 경착륙 요인 점검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 연구위원
(kcb@keri.org)

중국의 질적 성장전략이 추진된 2006년 이후, 전반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경착륙의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부채의 경우, 지방정부의 채무율(재정능력 대비 부채 비율)이 아직 안전한 수준에 있고 2014년 이후 지방정부 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방부채 증가율도 2015년에는 한자리 수(0.9%)로 둔화되었다. 당초 우려되었던 '구조개혁과 성장의 상충' 우려도 견조한 성장요인(소비증대), 구조개혁 성과 등이 버팀목으로 작용하면서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GDP 대비 170.8%에 이르는 기업부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 제조업 부진 그리고 부동산경기 불안 등을 감안할 때 리스크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부동산 경기 급랭 등으로 지방 및 기업부채 문제가 악화되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현실화될

경우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실물 경제는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수출입 탄력성을 도출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의 경제 성장 1% 하락이 우리의 수출과 GDP를 각각 0.29%, 0.37%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GDP 3위, 수출 3위의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중국 경제의 성장감속 및 내수 위주의 성장에 맞춰 지역 다변화와 함께 중간재 위주의 대중국 수출패턴을 점차 소비재 등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기술경쟁력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중국의 상반기 성장률이 올 성장 목표치 6.5~7.0%의 중간권인 6.7%를 기록하면서 '의도된 성장 감속=중속성장' 정책이 정착속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

- 특히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 본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1.8%로 2015년 3분기(1.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하지만 다양한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중속 성장 정책이 어긋나 경제 전체가 경착륙할 위험을 경고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음.

- 주로 지방정부 부채의 부실화, 급증하는 기업부채 문제, 그리고 구조개혁과 성장의 상충관계 등이 중국경제를 경착륙시킬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

□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 등 여러 면에서 상호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해야 하며, 중국시장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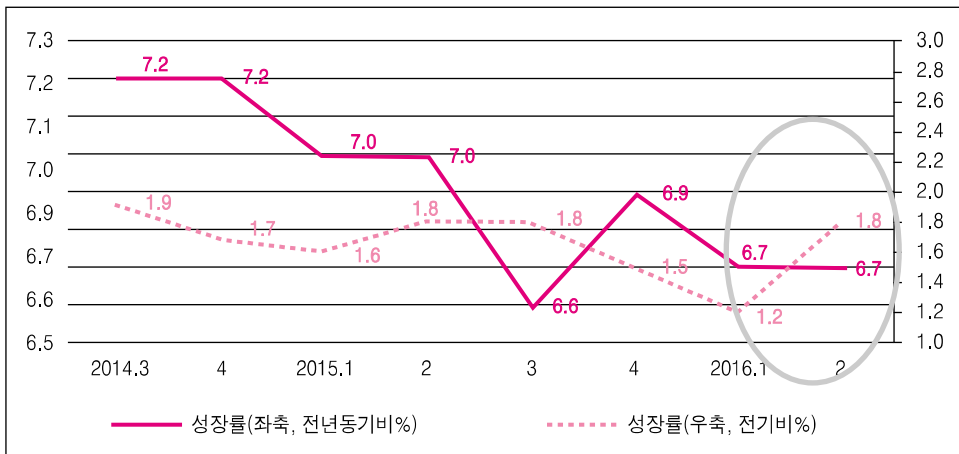
□ 이에 중국 경착륙 가능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고 경착륙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우선, 중국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주요하게 거론되었던 지방재정 부실, 기업부채 문제와 함께 그리고 향후 중국경제의 장기 성장잠재력과 관련한 구조개혁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경착륙의 가능성을 점검

- 다음으로 글로벌 탄력성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중국경제 성장 1%p의 수출 및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산하고 시사점을 도출

[그림 1] 최근 중국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2. 중국의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

(1) 지방정부 부채

▣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2015년 약 26.4조 위안¹⁾으로 추정

- 명목 GDP대비 37%에 해당되며 이는 중앙정부 (17.9%)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지방정부의 채무율(재정능력 대비 부채 비율)이 아직 안전한 수준이고 2014년 이후 지방정부 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방부채 리스크는 점차 통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됨.

- 2015년 말 일부 지방정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 정부 채무율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경계치(100%)보다는 낮은 수준

1) 2014년까지의 수치는 IMF(2016), 2015년 수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6)을 이용

[표 1] 중국 정부 추채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 of GDP	정부부채	45.8	47.1	51.0	51.8	55.8
	중앙정부	14.82	14.34	14.53	14.75	17.89
	지방정부	30.98	32.76	36.47	37.05	37.91
금액(10억 RMB)	정부부채	22,261	25,481	30,445	33,592	38,854
	중앙정부	7,204	7,757	8,675	9,566	12,454
	지방정부	15,056	17,724	21,770	24,026	26,400
	(증가율)		(17.7)	(22.8)	(10.4)	(9.9)
비중(%)	정부부채	1.00	1.00	1.00	1.00	1.00
	중앙정부	0.32	0.30	0.28	0.28	0.32
	지방정부	0.68	0.70	0.72	0.72	0.68

자료: IMF, 중국국가통계국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그림 2] 2015년 중국 25개성(省) 채무율 현황



자료: 第一财经日报(2016. 1. 21).

- 더구나 2014년 이후 지방정부 채무 관리를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강구²⁾하는 등 실질적인 개혁을 통해 부채증가율이 둔화

- 특히 2015년 3월 이후 지방정부가 은행 대출 등 기존 부채를 장기의 저금리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채 치환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정부 부담이 완화
-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율은 2013년(22.8%)을 정점으로 낮아져 2015년(9.9%)에는 증가율이 한 자리수로 하락(표 1] 참조)

□ 하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지방정부 부채 상환능력 악화에 대한 부실 우려는 지속

- 최근처럼 지방 토지가격 하락과 부동산시장 둔화 등의 양상이 지속될 경우 투자한 인프라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지방재정 악화 ⇒ 부채상환능력 ⇒ 국가재정부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 지방부채의 상당부분이 지방정부투자기관(LGFV: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의 부채로 주로 기본 인프라, 사회 주택 등에 투자된 상황
- 특히, 이미 열악한 재정상황에 직면한 구이저구 등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채무이행에 큰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

(2) 기업 부채

□ 중국 기업의 부채비율, 2015년 기준 170.8%. 2008년 대비 72.2%p 급등

- 국제결제은행(BIS)이 추정한 중국의 2015년 기준 기업부채 비율은 170.8%로 미국(71.2%), 유로지역(102.8%), 일본(101.3%)은 물론 신흥국 평균(104%)보다 크게 높은 수준

- 브라질(14.9%p), 러시아(16.8%p), 인도(4.7%p) 등 주요 신흥국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

- 2008년 말 98.6%에서 작년 말 170.8%로 72.2%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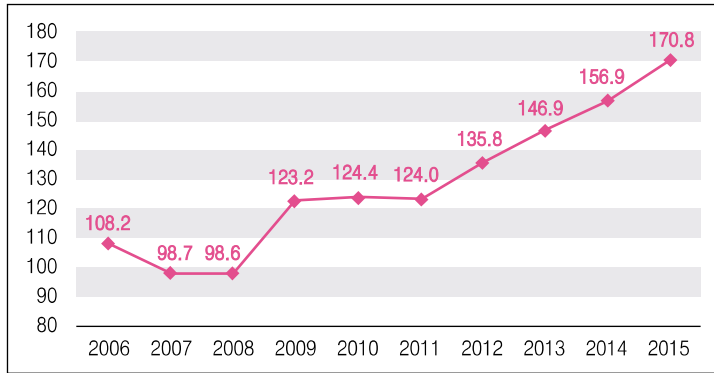
□ 물론 기업예금 증가, 양호한 정부 대응여력 및 중국정부의 조치 등이 기업부채의 금융위기로 확산 가능성을 일부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도 있음.

- GDP 대비 기업예금 비중이 증가하면서 잠재 부채상환 여력을 보완
- GDP 대비 기업예금비중은 '08년 52%에서 '15년 98%로 증가
- 중국 전체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정책적 대응여력도 양호한 편
- GDP 대비 총외채비율은 2015년 13.0%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안정권(20%) 수준 하회
-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 역시 2015년 28%로 안정권(100%)을 하회
- 또한 정부도 작년부터 은행부실 및 기업부채 문제 해소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

2) 2014년 10월 지방정부 부채 탕감을 위해 LGFV를 통한 자금 조달을 금지하고 은행의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 손실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라는 조치 등 2014년 이후 중앙정부의 부채 관리 강화 지침이 지속적으로 발표

[그림 3] 중국의 비금융기관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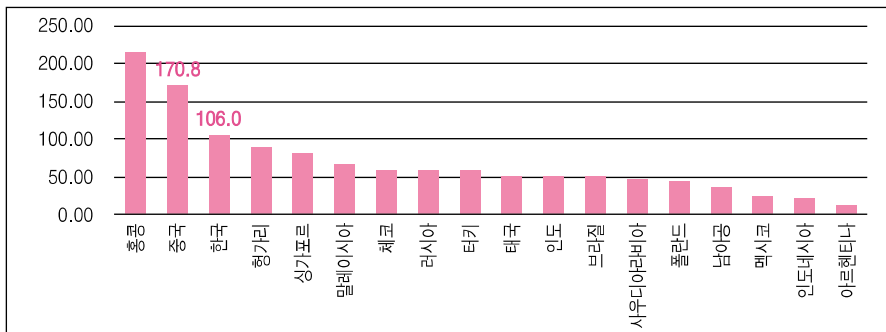
(단위: % of GDP)



자료: BIS

[그림 4] 주요국 GDP 대비 비금융기업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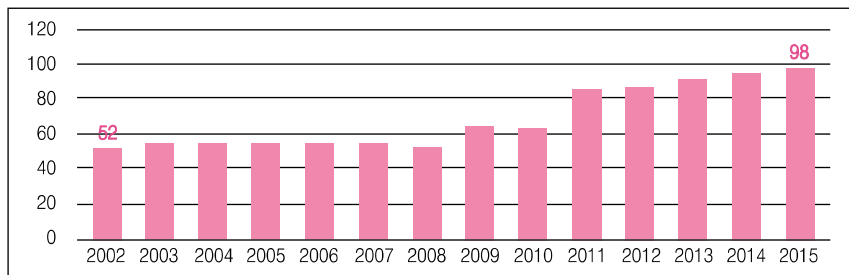
(단위: % of GDP)



자료: BIS

[그림 5] 중국의 GDP 대비 기업예금 비율

(단위: %)



자료: CEIC

□ 하지만 구조개혁에 따른 제조업 부진으로 기업 부채 문제가 지속적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부동산 경기 하강이 촉발 요소로 가세할 경우 기업부채 문제는 중국경제 최대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

- 과잉생산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한계기업의 도산이 증가하면서 중국 회사채 시장의 디폴트 우려가 지속될 전망

- 2014년 3월 태양광 업체 차오리솔라(Chaori Solar)가 10억 위안 규모의 디폴트 선언
- 지난해 10여 개의 대형 디폴트 건수에 이어 올해도 이미 7개 발생

- 또한 글로벌 교역위축 지속으로 특히 제조업 수익이 부진해지면서 기업 부채상환 능력 개선이 어려운 상황

- 특히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경우 파급 영향은 크게 증폭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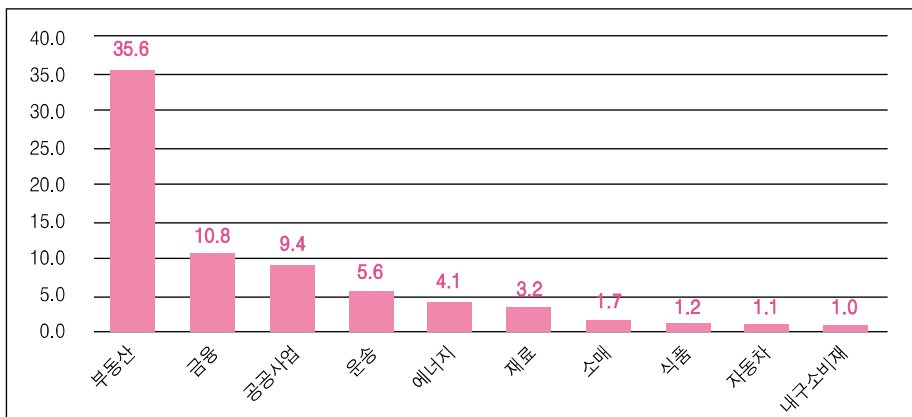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회사채의 만기도래분 중 부동산 업종 35.6%나 차지

- 이미 기업부채의 부실화에 대한 지적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에서는 부채 의존형 성장 구조의 한계로 중국경제가 금융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제기

- IMF(2016)는 비수익여신(NPLs)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약 5.5%의 낮은 수준이라는 중국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약 15.5%에 이를 것으로 평가

[그림 6] 2020년까지 회사채 만기도래의 10대 업종 비중

(단위: %)



자료: 국제금융센터, "중국의 기업부채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 2016.7.18

(3) 중국경제의 구조개혁

□ **견조한 성장요인, 구조개혁의 성과³⁾ 등이 버팀목으로 작용하면서 '구조개혁과 성장의 상충문제'에 대한 우려는 완화되는 모습**

- 소비주도 성장 잠재력, 정책적 대응 여력 등이 구조개혁의 성장 후퇴효과를 약화시켜주는 성장요인으로 작동
 - 지출 측면에서 투자의 기여도는 감소하고 소비의 기여도가 제고되면서 소비가 성장의 버팀목 역할
 - 양호한 재정 상태, 충분한 외환 보유고, 통화정책 추가 완화 여지, 환율 대응여력 등 경착륙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보유
- 구조개혁이 의도하는 산업고도화 및 성장동력 전환 측면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면서 지속 성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단순 임가공 무역의 축소가 가속화되면서 외국기업의 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수출 품목은 고부가가치화 추세
 - 2013년부터 3차산업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성장과 고용을 견인

(4) 중국 경착륙에 대한 판단

□ **최근 중국의 질적 성장전략이 추진된 2006년 이후, 전반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경착륙의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지방부채의 경우, 지방정부의 채무율(재정능력 대비 부채 비율)이 아직 안전한 수준에 있고 2014년 이후 지방정부 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방부채 증가율도 2015년에는 한자리 수(9.9%)로 둔화

- 당초 우려되었던 '구조개혁과 성장의 상충' 우려도 견조한 성장요인(소비증대), 구조개혁 성과 등이 버팀목으로 작용하면서 점차 완화되는 모습
- 하지만 GDP 대비 170.8%에 이르는 기업부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 제조업 부진 그리고 부동산경기 불안 등을 감안할 때 리스크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평가

□ **다만, 리스크 요인들을 촉발할 가장 가능한 위험요인은 부동산 시장 전망**

-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음.
 - 중국의 주택 재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182% 증가할 정도로 주택공급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여서 버블 붕괴 가능성 높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 주택소득비율(PIR: Price Income Ratio)이 하락 추세를 보이며 안정되고 있다는 주장
- 단기적 지표로 긴 사이클의 부동산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나 만약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급랭한다면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불가피
 - 부동산시장이 더블딥에 직면할 경우, 지방정부 부채, 기업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될 뿐 아니라 구조개혁도 지금까지처럼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

3) 12차에 이어 13차 5개년 계획 기간도 중국 경제는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 1) 요소투입, 제조업, 수출 중심 경제 ⇒ 생산성, 서비스업, 내수 중심 경제 2) 지방정부부채 관리 종합대책 발표('13년) 및 시행('14년~), 5대 과잉생산 업종 지정('13년), 국유기업 개혁 추진 강화('13년~) 등을 통해 성장기반 마련에 노력

3.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국 금융발 리스크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제한적

- 중국시장에 대한 한국의 금융 투자비중이 낮아 중국 증시 불안, 채권시장의 부도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손실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기준 한국의 중국 증권투자 잔액은 102.6억 달러로 對세계증권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불과

□ 하지만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현실화될 경우 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실물 경제 타격은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 중국 성장 둔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한 방법 개요

○ 분석 대상국: 2012~2014년 평균 기준 중국 수입 대상국 중 1% 이상의 비중국가

○ 분석 기간: 2004~2014년

○ 각국의 GDP에 대한 수입수요 탄력성을 이용, 글로벌 탄력성 매트릭스 추정

○ (직접효과) 중국 GDP 1% 하락이 각국 수출 및 GDP에 미치는 1차적 효과 추정

✓ 글로벌 매트릭스를 이용, 중국 GDP 1%의 하락에 따른 국별 대중국 수출 감소 금액(달러) 추정

✓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각국의 전체 수출 감소액과 감소율을 추정

✓ 각국 GDP의 수출탄력성을 이용하여 수출 감소에 따른 GDP 손실을 추정

○ (간접효과) 1차효과에서 추정된 각국의 GDP 손실을 다시 글로벌 매트릭스에 적용하여 2차효과를 추정

[표 2] 한국의 대중국 금융투자 추이

(단위: % *)

	2004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권투자	0.3	3.2	9.9	12.0	9.2	6.7	4.9	4.7	5.2	5.9
주식	1.1	7.9	15.0	16.5	12.3	9.3	6.6	6.1	5.6	6.0
채권	0.4	0.3	0.7	0.7	0.7	0.6	0.8	0.9	4.1	5.8
파생금융	0.0	0.0	0.0	0.0	0.0	0.0	0.0	0.0	0.0	0.3
기타투자**	11.4	13.1	8.3	10.0	12.7	15.3	14.5	17.5	23.4	16.8

주: * 한국의 대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기타투자는 대출, 무역신용, 현금 및 예금 자산 등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IIP)

중국경제 경착륙 요인 점검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분석결과, 중국의 GDP(달러표시, 명목)가 1% 하락하면 한국의 전체 수출은 0.29%, GDP는 0.37% 감소하며 중국경제 변동에 상대적으로 주요국 대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
- 분석대상국 22개국(중국 제외) 중 GDP 감소는 3위, 수출 감소도 3위로 나타남.
 - ✓ GDP 감소가 한국보다 큰 나라는 호주, 대만 순으로 이들은 모두 한국보다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 더구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상당부분 부품 등 중간재에 편중하고 있어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조치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타격은 더 클 가능성
 - ✓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은 2000년대 중반 40%대에서 2007년 이후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 확대의 영향으로 2015년에는 약 26%대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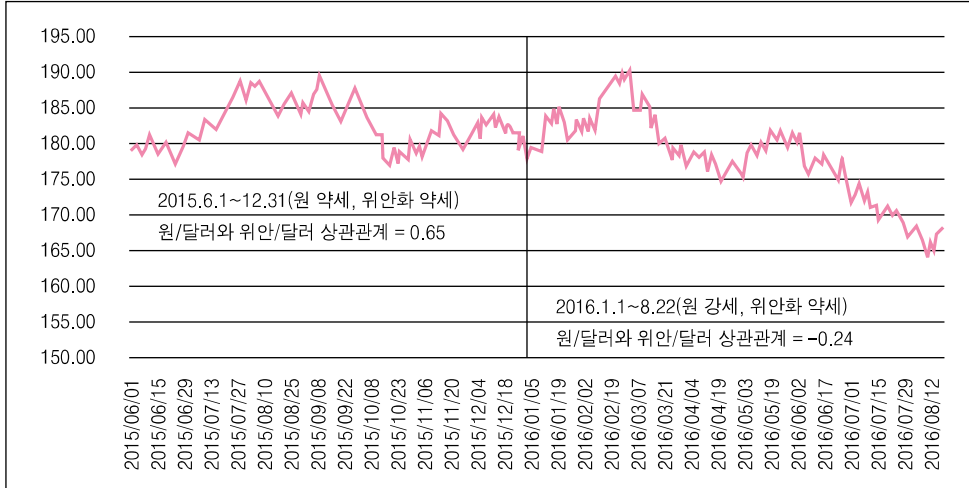
[표 3] 중국 명목 GDP1% 하락이 주요국 GDP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직접효과(A)			간접효과(A)		전체(A+B)	
	대중국수출	수출	명목GDP	수출	명목GDP	수출	명목GDP
호주	-0.69	-0.2319	-0.2658	-0.0646	-0.1378	-0.30	-0.40
영국	-0.66	-0.1376	-0.1616	-0.0587	-0.1281	-0.20	-0.29
캐나다	-0.62	-0.0302	-0.0332	-0.0610	-0.1361	-0.09	-0.17
칠레	-0.61	-0.1585	-0.1740	-0.0543	-0.1106	-0.21	-0.28
중국				-0.0927	-0.1623	-0.09	-0.16
프랑스	-0.63	-0.0262	-0.0293	-0.0667	-0.1330	-0.09	-0.16
독일	-0.71	-0.0483	-0.0518	-0.0730	-0.1377	-0.12	-0.19
인도	-0.62	-0.0353	-0.0408	-0.0719	-0.1381	-0.11	-0.18
인니	-0.63	-0.0884	-0.0981	-0.0735	-0.1379	-0.16	-0.24
이태리	-0.61	-0.0211	-0.0236	-0.0667	-0.1314	-0.09	-0.15
일본	-0.77	-0.1592	-0.1814	-0.0772	-0.1541	-0.24	-0.34
한국	-0.76	-0.2309	-0.2468	-0.0580	-0.1243	-0.29	-0.37
말련	-0.68	-0.1310	-0.1306	-0.0669	-0.1216	-0.20	-0.25
필리핀	-0.63	-0.1635	-0.1769	-0.0546	-0.1119	-0.22	-0.29
러시아	-0.66	-0.0535	-0.0591	-0.0719	-0.1356	-0.13	-0.19
싱가폴	-0.65	-0.0718	-0.0717	-0.0846	-0.1336	-0.16	-0.21
남아공	-0.61	-0.2215	-0.2461	-0.0387	-0.0981	-0.26	-0.34
스위스	-0.60	-0.0773	-0.0829	-0.0474	-0.1050	-0.12	-0.19
대만	-0.75	-0.2753	-0.2820	-0.0505	-0.1124	-0.33	-0.39
태국	-0.66	-0.1041	-0.1082	-0.0703	-0.1251	-0.17	-0.23
영국	-0.60	-0.0256	-0.0292	-0.0688	-0.1365	-0.09	-0.17
미국	-0.74	-0.0689	-0.0811	-0.0764	-0.1558	-0.15	-0.24
기타	-0.82	-0.1150	-0.1262	-0.0605	-0.1404	-0.18	-0.27
World	-0.74	-0.0864	-0.0915	-0.0697	-0.1445	-0.16	-0.24

[그림 7] 원/위안 추이와 원/달러 및 위안/달러 간 상관관계

(단위: 원/위안)



자료: 한국은행

□ 또한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위안화 약세 추세는 향후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뿐 아니라 우리 수출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전망

- 위안화 절하 → 중국 가격경쟁력 향상은 중국 외 3國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한·중 무역보완도 지수가 2004년 0.524에서 2014년에는 0.348로 하락하고 있고 미국시장에서 한·중 수출경합도는 오히려 0.533에서 0.592로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과거처럼 위안화 환율 절하에 따른 중국수출 회복이 우리 수출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게 축소

- 특히 2016년 이후 원화 강세, 위안화 약세 추세가 이어지면서 대중 가격경쟁력 약화가 더욱 확대될 전망

○ 지난해에는 원화가 위안화에 같이 절하되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동조화가 깨지면서 두 통화의 상관계수는 -0.24로 나타남.

4. 시사점

□ 중국 경제의 성장감속 및 내수위주의 성장에 대응, 지역 및 품목 다변화 전략 강화

- 중국 경제의 성장 감속에 따른 대중국 高 의존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출 및 투자지역 다변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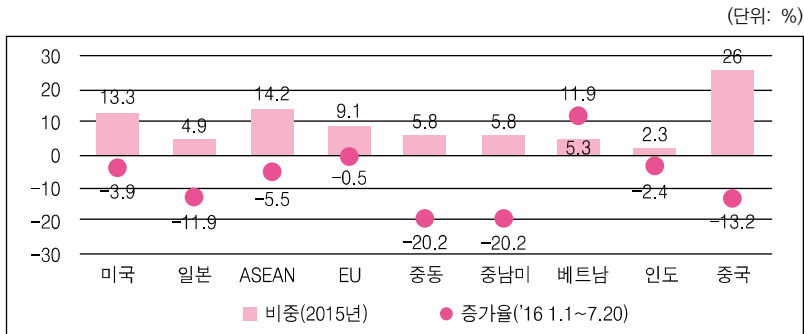
○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 감소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수년간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올 1~7월 중 11.9% 증가

- 중국 소비시장의 확대⁴⁾를 겨냥해 기존 중간재 위주의 對중국 수출구조를 점차 최종 소비재 등으로 품목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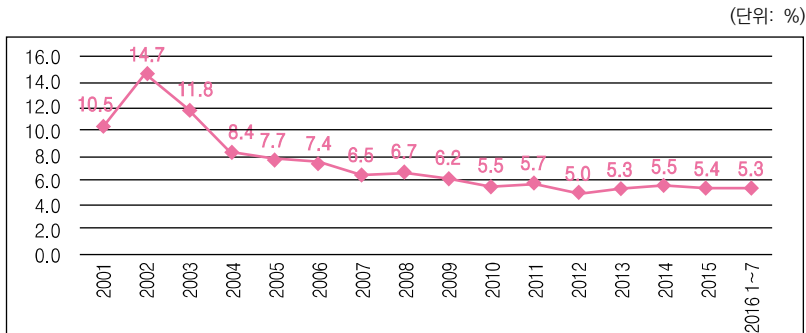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7.39%에서 2016년 1~7월 중에는 5.26%로 오히려 하락

4) 중국의 13차 5개년('16~'20년) 계획은 2020년 GDP와 1인당 소득을 2010년 대비 2배로 확대하고 도시화율을 6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수시장의 지속적 확대가 기대됨.

[그림 8] 2016년 주요 지역 수출동향



[그림 9] 대중국 소비재 수출비중



□ 중국 경제 및 산업 구조 고도화에 대응, 한국 경제의 효율성 제고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제 분업구조 개편 가속화에 대비

- 대중국 제조업 수출 경쟁력 제고
- 고부가 혁신형 제품 개발을 위한 R&D 효율성 제고
- 자본, 노동력 같은 양적 투입이 아닌 질 높고 차별화된 아이디어 산업 발전

□ 중국궤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정량적 정성적 모니터링 강화

- 향후 위안화 절하, 부동산 버블붕괴 등 가능한 중국발 리스크 확산에 대비, 파급 시 국내 영향, 경로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 리스크를 측정하는 조기경보시스템 등 정량적 모형 개발뿐 아니라 금융시장, 외환시장, 해외시장 등의 변화에 대한 정성적 모니터링이 보완될 필요

[참고문헌]

국제금융센터, “중국의 기업부채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 2016.7.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6), “중국의 레버리지 축소(去杠杆) 정책 추진 현황 및 전망”, 2016.5.31.

이은영(2015), “주요 차이나 리스크 점검 및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KDB 산업은행

이치훈(2016), “중국경제 진단과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 「예산정책연구」 제5권 제1호, 2016.5, pp12-49

천용찬, 한재진(2015), “중국의 부채 구조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16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ug. 12. 2016.

Jonathan Woetzel, et al (2016), 「China’s Choice: Capturing the \$5 Trillion Productivity Opportunity」,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6.6,